

“여러분, 즐겁게 젖을 준비 되셨나요?” 친구들과 놀던 물장난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에버랜드 새 여름 축제 ‘썸머 워터 펀’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관객 참여형 공연 ‘슈팅 워터 펀’. 재미있는 악당 캐릭터로 분장한 배우들과 관객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대포를 맞으며 ‘물 맞는 재미’를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81일간의 워터 축제… 물폭탄 펑펑! 재미폭탄 팡팡!

에버랜드 시즌 축제 ‘썸머 워터 펀’

50여명 연기자와 물총 쏘며 미션대결
다양한 이벤트와 물 맞는 재미에 흠뻑
LED 워터 그래피티 그리며 환상체험

이제는 여름철 필수 나들이 코스가 된 워터파크. 국내 워터파크는 이미 2~3년 전부터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름이 오면 위치·시설·서비스 불문하고 손님으로 북적거려 행복한 비명을 지르던 시절은 끝났다는 말이다. 레저 문화에 대한 높아진 눈높이와 한결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곳과 아닌 곳의 격차가 매년 벌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워터파크라면 떠올리는 대형 물놀이 시설들은 사실 한번 설치하면 매년 바꾸기가 어렵다. 결국 고객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발 빠르게 파악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민 매력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국내 야외 테마파크를 대표하는 용인 에버랜드가 이번 여름에 내놓은 새로운 시즌 축제 ‘썸머 워터 펀(Summer Water Fun)’은 그런 고객 ‘취향저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 맞는 재미’도 급이 다르다…‘슈팅 워터 펀’

에버랜드의 ‘썸머 워터 펀’은 15일 개막해 9월3일까지 81일간 진행한다. 축제의 핵심 콘셉트는 ‘물 맞는 재미’. 마치 어린시절 친구들과 장난치던 것처럼 물을 갖고 놀면서 시원스럽게 젖어보자는 것으로 에버랜드가 2005년 처음 파크 축제에 도입한 역발상의 아이디어다. 최근에는 다른 테마파크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응용한 이벤트를 종종 실시하는데, 원조답게 에버랜드는 이번에 수준을 확 끌어올렸다.

축제 기간 동안 카니발 광장에서는 매일 2~3회에 걸쳐 워터배틀쇼 ‘슈팅 워터 펀’이 열린다. 더위를 몰고 온 폭탄 캐릭터 밤밤맨에 맞서 시원한 물의 행성 워터플래닛을 지킨다는 이야기의 공연이다. 30분 동안 50여명의 연기자들이 나서는데, 하이라이트는 이들과 관객들이 벌이는 물총싸움. 가만히 앉아서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무대를 오가는 연기자들과 다양한 미션 대결을 펼치고 물총으로 서로를 쏘며 즐기는 ‘흠뻑 젖는’ 공연이다.

공연을 위해 카니발 광장을 대형 물총으로 폭탄을 맞추는 길이 12m, 높이 9m의 초대형 게임판으로 개조하고, 객석 상단에 관객들에게 물을 쏟는 물 폭포 5개도 설치했다. ‘슈팅 워터 펀’을 즐기기 위해서는 비옷과 물총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에버랜드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에버랜드 내 곳곳에 설치한 이벤트 공간에서는 공연과 연계한 스탬프 랠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물총으로 LED 과녁판 맞추기, 밤밤맨 캐릭터를 찾아 인증샷 찍기 등의 미션을 모두 마치면 선물을 증정한다. 포시즌스가든 풍차무대 옆 이벤트 부스에서 매일 200명씩 선착순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밤밤맨 캐릭터들이 파크 내에서 플래시몹 댄스를 펼치고, 손님들과 물총싸움을 하는 ‘밤밤어택’ 퍼포먼스는 수시로 진행한다.







관객들이 물총을 들고 참여하는 공연 ‘슈팅 워터 펀’에서 악당 밤밤맨을 맡은 배우들. 물에 반응하는 LED스크린에 물에 적신 붓으로 그린 그림이 빛으로 재현되는 ‘LED 워터 그래피티’. 매일 밤 파크를 행진하는 인기 프로그램 ‘문라이트 퍼레이드’.(왼쪽 사진부터)

●여름밤의 환상적 체험, ‘LED 워터 그래피티’

한낮의 즐겁고 떠들썩한 물총 싸움에 이어 밤의 하이라이트는 여름 낭만과 환상을 색다르게 느껴보는 ‘LED 워터 그래피티’다. 물과 접촉하면 빛을 내는 특수 LED전구를 활용한 체험으로 이를 위해 장미원에 길이 23m, 높이 2m의 LED 스크린을 설치했다. 현장에 있는 붓에 물을 묻혀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전구가 빛을 발하며 화려한 영상을 만든다.

7월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는 음악과 어우러진 ‘LED 워터 그래피티 드로잉쇼’ 공연이 밤에 3회씩 열린다.

포시즌스 가든 옆 플란다즈 레스토랑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블랙라이트 체험존’을 운영한다. ‘블랙라이트’는 가시광선 근처에 있는 자외선을 말하는데, 주로 어두운 장소에서 야광 효과 연출에 사용한다. 아이들이 블랙라이트의 원리를 배우고 블랙라이트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 동화책 읽기 등 다양한 체험 컨텐츠를 만날 수 있다.

포시즌스가든에는 물고기, 문어, 해초 등 다양한 바다 속 생물들을 소재로 만든 한지등(燈) 조형물을 설치한다. 미스트 터널, 버블 트리 등과 어우러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스팟으로 최고이다. 인기 행사인 ‘문라이트 퍼레이드’와 세계 춤을 테마로 한 멀티미디어 불꽃쇼 ‘주크박스 렛츠댄스’도 매일 밤 열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판다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판다월드에는 스마일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스마일 배틀’을 설치해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웃는 얼굴 대결을 즐길 수 있다.

에버랜드는 ‘썸머 워터 펀’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밤10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한 시간 연장해 밤 11시까지 오픈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사진제공 | 에버랜드

“모바일 대작게임으로” 카카오, 승부수 던지다

‘음양사’ 비공개 테스트…8월 출시
4:33과 ‘블레이드2’ 공동 퍼블리싱

게임

카카오가 모바일게임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음양사’의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기대작 ‘블레이드2’의 퍼블리싱 소식을 알리며 대작 라인업 확보에 속도를 더했다.

먼저 모바일게임 ‘음양사 for kakao’는 27일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한다. 정식 론칭은 8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게임은 중국의 넷이즈가 개발했다. 약 2년 동안 100여명의 개발 인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전세계 2억 다운로드를 달성했다. 고대 일본을 배경으로 전설의 귀신들을 수집해 전략적 조합을 구성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이다. 고대 동양 배경 세계관과 고품질 그래픽, 연극을 연상케 하는 풀 애니메이션 방식의 스토리 연출이 특징이다. 국내 버전은 40여명의 성우를 동원해 스토리에 몰입감을 더했다.

카카오는 음양사를 이을 또 하나의 대작도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최근 네시삼십삼분과 액션 스퀘어가 제작 중인 모바일 액션 RPG ‘블레이드2 for kakao’를 공동 퍼블리싱하기로 했다.

‘카카오게임 S’를 통해 하반기 정식 출시 예정이다. 블레이드2는 모바일 게임 최초로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블레이드’의 후속작. 2014년 출시된 블레이드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휩쓸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카카오는 블레이드2가 언리얼4 엔진을 사용해 고품질 그래픽과 액션성, 타격감을 갖췄고, RPG의 성장과 재미 요소도 한 단계 더 높인 블록버스터 대작이라고 소개했다. 콘솔 게임 같은 스토리 연출을 바탕으로 검투사, 암살자, 마법사, 격투가 등 4명의 캐릭터별 전투와 액션을 잘 담아냈고, 업그레이드된 태그 전투 시스템과 성장 시스템으로 플레이의 재미를 더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관련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엔 와이디온라인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총 50억원의 지분 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현재 인기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노블레스’, ‘외모지상주의’ 기반의 모바일게임 2종과 ‘프리스톤테일 모바일’ 등 총 3종의 기대작을 라인업에 추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카카오는 중국 넷이즈가 개발한 대작 모바일게임 ‘음양사’를 8월 초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카카오

롯데호텔서울 신관, 11년 만에 전면 리뉴얼

일반 객실 줄이고 스위트룸 늘리고
내년 8월까지 13개월 개보수 공사

롯데호텔(대표이사 김정환)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신관을 11년 만에 전면 리뉴얼한다.

롯데호텔은 7월1일부터 소공동 신관 개보수 공수를 시작해 2018년 8월까지 13개월간 실시한다. 롯데호텔서울 신관은 88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둔 1988년 8월10일에 개관해 2006년 한 차례 리뉴얼했다. 현재 14층부터 35층까지 객실 373실, 미슐랭 3스타 셰프 레스토랑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 라이브러리 티 라운지 ‘살롱 드 떼’ 등을 갖추고 있다.

롯데호텔은 리뉴얼을 통해 객실을 373실에서 250실 규모로 줄여 일반 객실의 공간을 넓히고 스위트룸을 늘린다. 인테리어는 포시즌스 카사 블랑카, 월도프 아스토리아 암스테르담 등의 디자인을 맡았던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사인 영국의 The G.A Group이 참여한다.

그동안 각국 정상과 셀러브리티들이 묵었던 로얄 스위트도 이번에 침실 2개, 거실 2개, 다이닝룸, 미팅룸, 드레스룸, 개인 서재 등을 갖추는 등 국내 최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15층과 16층에는 클럽라운지 ‘인 하우스 게스트 라운지’를 신설한다. 15층은 프라이빗 미팅룸과 비즈니스 코너, 릴랙싱룸, 16층은 조식, 가벼운 스낵, 애프터눈티, 해피아워 앤 바 서비스 등이 가능한 다이닝 공간으로 변신한다. 특히 16층에는 전문 바텐더와 바리스타가 상주하고, 셰프가 즉석에서 조리하는 라이브 스테이션, 트롤리 서비스도 실시한다.



롯데호텔서울 신관 리뉴얼 이미지

고객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해 스위트룸에 버틀러 박스를 설치하고, 인천공항 1층 도착 로비에 있는 에어포트 리셉션을 통해 공항부터 호텔까지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